최지만, 시즌 첫 홈런포 가동

MLB 오클랜드와의 경기서
홈런 포함 3타수 3안타 3타점
탬파베이, 9-8로 승리

탬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오른쪽)이 12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린 2022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경기 2회 말 역전 3점 홈런를 치고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최지만(31·탬파베이 레이스)이 시즌 첫 홈런포를 가동하며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했다.

최지만은 1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린 2022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경기에 3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 홈런 하나를 포함해 3타수 3안타 1볼넷 3타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성적은 13타수 8안타(타율 0.615)다.

1회 첫 타석에서 볼넷을 골라낸 최지만은 팀이 2-3으로 따라가던 2회 1사 1, 2루 두 번째 타석에서 상대 선발 애덤 올러와 마주섰다. 최지만은 초구 체인지업을 지켜본 뒤 2구째 싱커를 통타, 우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역전 스리런 아치를 그렸다.

최근 4경기 연속 안타이자 올해 5경기 만에 나온 시즌 첫 홈런이다.

불붙은 최지만의 방망이는 쉬지 않았다. 4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좌선상 2루타를 날렸다. 6회 무사 3루에서는 유격수 방면 내야안타로 출루했지만, 3루 주자가 움직이지 않아 타점은 추가하지 못했다.

매 타석 출루하며 존재감을 과시한 최지만은 7-7로 맞선 7회말 2사 후 대타 안디 디아즈와 교체, 이날 경기를 마쳤다. 상대가 마운드에 좌완 커비 스니드를 올리자 벤치는 최지만 대신 우타자 디아즈를 선택했다. 그러나 디아즈는 땅볼로 물러났다.

최지만은 올해 시범경기에서 타율 0.111(18타수 2안타)에 그치고, 장타는 하나도 때려내지 못했다. 타격 컨디션에 대한 우려의 말이 나오기도 했으나 막상 시즌이 시작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뜨거운 방망이를 과시하고 있다.

한편, 탬파베이는 연장 10회 승부 끝에 9-8 승리를 거뒀다. /뉴시스

손흥민, FIFA 모델 정중앙 위치

카타르월드컵 공식 SNS 메인 공개

FIFA 카타르월드컵 공식 SNS

한국 축구대표팀 간판 손흥민(30·토트넘)이 리오넬 메시(파리생제르맹) 등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3일(한국시간) 손흥민을 가운데 세운 카타르월드컵 공식 SNS 메인 사진을 공개했다.

과거 영상 자료 제작 콘텐츠와 경기 생중계 등을 볼 수 있는 FIFA+를 론칭하면서 메인 모델로 손흥민을 정중앙에 내세운 것이다.

손흥민은 메시, 네이마르, 킬리앙 음바페(이상 파리생제르맹) 등과 함께 모델로 등장했다.

한국의 캡틴인 손흥민이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손흥민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카타르월드컵 공인구 알 리흘라의 대표 모델로 메시와 함께 등장한 바 있다.

또 벤투호의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됐을 때도 한국 대표로 손흥민의 사진이 FIFA의 공식 SNS에 올라왔었다.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월드컵을 경험한 손흥민은 카타르월드컵에서 개인 통산 세 번째 월드컵에 도전한다.

앞선 두 대회 모두 16강 문턱을 넘지 못했던 손흥민의 목표는 첫 토너먼트 진출이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H조에서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와 경쟁한다.

올 시즌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17골로 모하메드 살라(리버풀·20골)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라 있다.

새 영상 플랫폼인 FIFA+에서는 2002년 한일월드컵을 다룬 다큐멘터리 '2002: 디스 이즈 언 아시안 오디세이'(This is an Asian Odyssey)도 볼 수 있다. 해당 영상에는 거스 히딩크 전 감독을 비롯해 4강 주역인 안정환, 박지성 등이 출연한다. /뉴시스

국민 64% "골프 사치스런 운동 아냐"

한국갤럽 여론조사

국민 64%가 골프는 사치스러운 운동이 아니라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과거와 달리 매년 골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골프의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1992년 한국인 중 72%가 골프를 '사치스러운 운동'이라고 생각했으나, 이후 그 비율은 점차 줄어 2013년 48%, 2018년과 2022년 이번 조사에서는 각각 35%, 36%가 나왔다.

골프는 입문 후 첫 라운딩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요한다는 점에서 사치스럽다고 보는 사람이 적지 않은 듯하다. 하지만 2018년 이후 골프 가능 여부별·연령별 인식 차이는 거의 사라져 대중화로 접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골프 가능 여부를 물은 결과 34%가 '칠 줄 안다'고 답했다. 골프를 칠 줄 아는 사람은 여성(26%)보다 남성(42%), 연령별로는 50대(52%)와 40대(41%), 자영업과 사무·관리직(40%대), 생활수준 상·중상층(54%)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골프를 칠 줄 안다'는 사람은 1992년 2%, 2004년 6%, 2013년 18%, 2018년 24%, 2022년 올해 34%가 됐다.

현재 골프를 칠 줄 모르는 사람(662명) 기준으로만 보면 31%가 '앞으로 배울 의향 있다'고 답했다. /뉴시스

정지호 "KPGA 스릭슨투어 우승"

13일 군산CC에서 열린 2022 KPGA 스릭슨투어에서 정지호가 연장 끝에 우승을 확정짓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KPGA 제공〉

전북체육회, 임원 4명 추가 선임

김건호 전북 프로복싱협회 회장 등
'임원 활동 중' 최병선 이사 부회장에

전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가 전북 체육 발전을 위해 임원 4명을 추가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선임 된 임원은 김건호 전북 프로복싱협회 회장, 박진규 전 전주대 레슬링 감독, 박은선 휴먼스타코칭연구소 대표, 이영국 전북골프협회 회장 등이다.

또한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병선 이사(전 전북자전거연맹 회장)는 부회장이 됐다.

이번 임원진 확대·강화로 전북체육회는 부회장과 이사, 감사 등 총 70명의 임원진을 구성하게 됐다.

정강선 회장은"전북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을 임원으로 모시게 됐다"며 "건강한 체육, 행복한 도민, 빛나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